

[성 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7:14)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채희근
편집인: 윤성천
전화: 0502-604-0691
팩 스: 0303-0944-2936

총회본부 준공감사예배



2022년 11월 25일(금) 11시에 초월제일교회(장백준 목사 시무)에서 총회본부 건물의 준공감사예배가 있어서 약 160 여명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했다.

감사예배는 총회 서기인 과동식 목사의 사회와 이용주 목사(증경 총회장)의 기도 후에 총회장인 채희근 목사의 '에스라의 사명과 기도'(스7:1-11; 8:21-23)라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

명륜교회 원로 목사인 고석남 목사의 축사와 총회 총무인 김정경 목사의 건축보고와 광고 후에, 총회장이 마루건축사와 변경무 장로와 최삼균 장로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증경총회장인 이창욱 목사의 축도로 준공감사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예배 후에는 장로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그라스락 2셋)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으며, 점심식사를 위해서는 출장부과와 초월제일교



회(장백준목사 시무)의 섬김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본부의 건물을 자체적으로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 계신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단이 되기를 소원한다.

기사 남성호 목사
사진 이나라 목사

2023년도

총회장 신년사



채희근 목사
(도봉교회 시무)

존경하는 총회원 및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19(COVID-19) 전염병 재앙의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통과 난관의 끝이 보일 듯 말 듯 하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구촌에는 금년에도 전쟁과 기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이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 고이율, 그리고 고환율로 우리의 산업이나 가정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교회의 재정도 규모 있게 잘 꾸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계약(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자기 백성을 징치(懲治)하시지만(삼하 7:14), 물론 이것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계약적 사랑(Covenantal Love)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요, 회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하 7:14).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 총회원 및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샬롬!!

계약신학연구원

2022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2022학년도 2학기 종강 예배가 11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에 명륜교회에서 계약신학연구원 원장 박세덕 목사(명륜교회)의 사회로 있었다. 김광원 목사(광흥교회)의 기도예배 이어 강도를 맡은 박세덕 목사는 누가복음 10장 1-3절의 말

씀을 가지고 “칠십 인의 일꾼(문도)”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한 후 박세덕 목사의 축도로 종강 예배를 마쳤다.

계신총회 교단의 미래를 위한 교역자 수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교단소속 모든 교회가 목사 후보

생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성도들은 각 교회 담임 목사와 상담하거나 계약신학연구원 모집공고를 참조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은 2023년 3월 6일(월) 오후 6시 명륜교회에서 한다.

기사 김광원목사



2023년도 계약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

◎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

◎ 성경을 바르게 깊이 있게 배우는 곳

◎ 영성과 지성과 인격성을 갖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길

◎ 역사와 전통이 있음(1967년 설립)

· 과정

- ▷ 성경연구과정(8학기)
- ▷ 신학연구과정(6학기)
- ▷ 여성은 성경연구과정을 마친 후 여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좋은 제도

- ▷ 입학생 전원에게 100% 장학금 지급
- ▷ 학사 자격증이 있고 55세 이하인 남학생은 신학연구과정을 마치면, 교육부 인가받은 신학석사(Th.M)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함
- ▷ 지방의 학생들은 온라인강의로 공부할 수 있음
- ▷ 졸업생은 강도사 고시 후에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음
- ▷ 선교 사명이 있는 자는 졸업후 파송받을 수 있음

· 입학시험

- ▷ 날짜: 2023년 3월 6일(월) 오후4시
- ▷ 장소: 본원 강의실

· 입학 및 진로상담

이사장: 이용주 목사(전 총회장) 010-8781-7471

· 교무처

간사: 유신승 010-3790-0159
www.kyeyak.co.kr
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 6(혜화동 로타리)

연구원장: 장백준 박사(Th.D)

명예원장: 박황우 박사(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전총장)

설 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상 7:1-4



박정한 목사
남일교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 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와 왕정 시대의 중간쯤입니다. 당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삼상 3:1).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하였습니다.

삼상 4장에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전한 후 하나님의 언약궤(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삼상 4:2-4).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삼상 4:10).

여러분,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삼상 4:11). 엘리 제사장은 아들 둘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삼상 4:17-18).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 죽어가면서 네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삼상 4:19-22).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

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삼상 5:6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가 기약여아림에 돌아온 지 20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삼상 7:2).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몇 가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했습니다(3절).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병규목사님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권고 하였다. 돌아올 때에는 전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되 마음을 붙잡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키기를 힘써야 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키려고 애를 쓰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야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대하

16:9).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자와 여러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이방 신들과 아스다룻을 제거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둘째, “이방 신들과 아스다룻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년 동안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 23:24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룻(4절)을 섬길 때,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룻을 섬기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룻을 섬기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 6:24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병규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즈음은 돈이 우상이 되었고, 남편과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자기”입니다.

내 속에도 우상이 많이 있는 줄 알고 내 속의 우상을 다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

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셋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야”합니다.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 29:13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죄와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룻(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글 정준채 목사

침사에 잠겨 가서 심문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별기도 기간을 정해 놓고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2.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애독자였는데 평생에 240회 이상 성경을 통독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는 습관을 가졌는데 여행을 하면서도 반드시 성경을 자신의 규례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읽지 못했을 때에는 밤중이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양을 읽곤 했습니다. 그는 성경 녹음 테이프를 구

인태교 목사님 소천에 즈음하여

인태교 목사님이 며칠 전 93세의 일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귀감이 되겠다 생각되어 회고해 보으로써 우리의 모본을 삼고자 합니다.

1.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의 묵화의 성과는 기도생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한 후에는 교회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산에 기도처를 마련해 두고 그곳에서 오전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과 연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은 새벽 기도 후 산으로 가는데 어떤 교인이 그의 뒤를 따라오다가 돌아갔는데 그 이유인즉 목사님이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고 교회에 등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기도원에 기도실을 마련해 두고 금요일과 토요일과 수요일에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곤 하였는데 새벽 3시쯤에는 항상 산 위에 마련한 기도처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몸이 쇠약해졌는데도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다른 목사님에게 연락하여 업혀서 내려온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역자 몇 사람과 먼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였는데 공비로 오인 받고 경

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희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회는 그의 후생살을 위해 분당 야탑에 거처할 집(아파트)을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연령이 되어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은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봉사의 사람이었으니 기도원 기도실에 입주하지 못한 교역자들이 천막을 치거나 기도막을 만들어 기도처를 삼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용할 물을 공급하기 위해 프라스틱 호스 200미터를 사다가 산허리를 두루파서 물을 사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봉사를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가 승용차 운전을 할 때 야탑에서 나와 양

병기 목사를 태우고 기도원에 다니는 것을 기뻐하였고 몸이 약한 나의 짐을 저다 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는 봉사할 일이 생기면 기꺼이 나섰습니다.

4. 그는 정직한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공중 화장실에서 여자 가방을 습득하였던 그 속에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서 주수와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즉시 연락하여 되돌려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방의 주인은 목사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개척한 교회

이지만 자기 양심이 허락치 않는다 하여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고 아들 목사를 남미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거의 다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이 시대에 이 같은 일은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5. 그는 복음전도와 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인시절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였고 목사가 되어 사경회를 많이 인도하였으며 외국 선교에도 주력했습니다. 몽골, 필리핀, 중국 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제주도에 성경을 배우러 찾아오는 외국

인들에게도 수차례 선교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와 같은 인 목사님의 자손들 가운데도 목사가 된 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땅위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과 영광을 누리시겠지만 그분을 떠나 보낸 우리는 아쉬움이 그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 1:23-24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세상에 더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는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서별입니다. <글>

논 단



홍진우 목사
임학성광교회

신사도 운동은 한 마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의 직책이 있다는 주장으로 미국의 폴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피터 와그너(1930-2016)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와그너는 은사주의 지도자 존 켈리(John P. Kelly)와 함께 2000년도에 국제 사도 연합(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Apostles)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2001년부터 제 2의 사도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천명하였다. 이들은 에베소서 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를 핵심본문으로, 오늘날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하고 회복할 때, 더 이상 영적침체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극단적 신비주의 경향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이전의 은사운동이 그러하였듯이, 신사도운동도 그들이 앞세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한 신비한 성령 체험을 강조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해 주어졌던 것으로 특별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통한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말씀을 통한 말씀의 역사였다. 예수님도 친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라고 말씀하신바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성령체험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신비한 성령 체험은 이교적인 것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1. 초대교회 때와 같이 이 시대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

피터 와그너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론에서 언급했던 에베소서 4:11-12외에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의 말씀도 사용한다. 아울러 와그너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들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하시는데, 몸

신사도운동

스스로가 그 일을 거부하므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계시의 종결성과 성경의 총족성을 부정한다!

사도와 선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사도 운동은 그들이 임명하고 인정하는 이 시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계속 임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신구약 66권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종결되었다는 정통적인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시의 종결성은 성경의 총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딤후 3:16-17).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고 필요치도 않다. 에베소서 2:20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을 통해 주셨던 성경 말씀을 가리키며 교회는 성경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18-19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은 비성경적이며 매우 잘못된 것이다.

2) 극단적 신비주의 경향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이전의 은사운동이 그러하였듯이, 신사도운동도 그들이 앞세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한 신비한 성령 체험을 강조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해 주어졌던 것으로 특별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통한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말씀을 통한 말씀의 역사였다. 예수님도 친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라고 말씀하신바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성령체험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신비한 성령 체험은 이교적인 것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3.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영(territorial spirits)이 있다.

피터 와그너는 다양한 인공물과 자연물 뿐 아니라 동물, 우상, 나무, 산, 빌딩 등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지역의 영들이 복음사역의 주된 방해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땅 밟기 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등을 아울러 주장한다. 특별히 선포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피터 와그너, 도미니온, 170).

1) 잘못된 이원론적 관점을 심어준다!

바로 위의 2번과도 관련 있는 문제로, 신사도 운동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

신사도운동

긴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 (Dominion/주권운동).

신사도 운동은 세상을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문화, 교육, 종교 등의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모든 영역을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정복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두 기동으로 “잃터 교회”와 “부의 이동”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신자들이 가난의 영을 부수고 번영의 영을 초청하므로 막대한 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한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마귀를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표현이 있지만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아래 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세상의 일부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상을 심어준다. 이사가 45:7은,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있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한다.

2) 물질에 대한 욕심을 조장하고 합리화시킨다!

“부의 이동”을 주장하며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도 말씀하셨다. 물질과 번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3.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영(territorial spirits)이 있다.

피터 와그너는 다양한 인공물과 자연물 뿐 아니라 동물, 우상, 나무, 산, 빌딩 등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지역의 영들이 복음사역의 주된 방해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땅 밟기 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등을 아울러 주장한다. 특별히 선포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피터 와그너, 도미니온, 170).

1) 잘못된 이원론적 관점을 심어준다!

바로 위의 2번과도 관련 있는 문제로, 신사도 운동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

결구도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을 쫓아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 가난한 영, 불순종의 영, 고만의 영, 음란의 영, 질병의 영 등 온갖 것에 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선포하고 축사함으로써 건강해지고, 부해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사상과도 연결이 된다. 만약 가난과 질병과 온갖 시련들이 모두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축사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끝에 순교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선포하고 축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로 믿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건강하고 부자여야 하고 어떤 재난이나 사고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신사도 운동에 대해 특별히 경계해야 될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신사도 운동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현대 은사주의의 중요한 한 흐름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영향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은사운동과 비성경적인 사상이 침체된 교회와 삶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중요한 동력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을 경고하신바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 늘이나 앞으로도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현대교회의 침체는 새로움의 부재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고 세속화의 문제라고 본다. 교회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며,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겨 말씀을 파수하고 힘써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는다. <글>

상대원교회

장로 안수집사 임직 예배



2022년 10월 2일 저녁 7시에 상대원교회에서 당회장 유영길 목사의 인도와 집례로 장로, 안수집사 임직 예배를 드렸다.

예배 순서는 총 4부로 진행이 되었는데, 1부에서는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총회장 채희근 목사가 디모데전서 1장 12-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직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2부에서는 장로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다섯 명의 장로 임직자(신학균, 김주철, 장영훈, 임영록, 김철균)와 교우들의 서약 후에 안수 위원(채희근, 고석남, 이창욱, 정양곤, 이용주, 한재창, 한길주, 남성호, 김유열, 유영길)의 안수가 있었다. 그리고 당회장의 장로 임직 선포 후 증경총회장 정양곤 목

사(신정교회 시무)의 권면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안수집사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여덟 명의 안수집사 임직자(노석진, 원건희, 이성창, 전성구, 전유왕, 정동수, 정선호, 주영기)와 교우들의 서약 후에 안수 위원(채희근, 고석남, 이창욱, 정양곤, 이용주, 이청수, 장백준, 김영완, 김신득, 유영길)의 안수가 있었다. 그리고 당회장의 안수집사 임직 선포 후 이청수 목사(백양교회 시무)의 권면이 이어졌다. 4부에서는 축사 및 축하의 순서를 가졌다. 증경총회장 이창욱 목사(성산교회 원로)의 축사 후 임직자들에게 임직패를 수여했다. 임직자 대표로 신학균 장로의 답사 및 광고가 있었고 증경총회장 고석남 목사(명륜교회 원로)의 축도로 폐회하였다.

임직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바쁜 가운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기도와 축하로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사 천은준목사

계신총회 8월 사경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 총회 8월 사경회가 명륜교회(박세덕 목사 시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3길 6)에서 2022년 8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8일 목요일 오전 예배까지 대면 예배로 진행됐다. 총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사경회 말씀을 듣고 연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사경회 첫날 개회 예배는 오후 2시부터 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골로새서 1장 설교로 시작하였다.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총 9명의 강사가 골로새서(이용주, 정양곤, 박세덕, 박황우)와 데살로니가전서(김성진, 이창욱, 유영길, 채희근, 고석남)를 한 장씩 설교하였고, 이에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첫날 530여 명의 많은 성도

가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경회를 대면예배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이번 8월 사경회는 대면예배를 드리며 교역자와 성도 간에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었다. 헌금 작성 시간에는 사경회 연보와 그 동안 총회사무실이 없어 총회 사무실을 여러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총회 사무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에 건축을 위한 연보를 작성하였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에 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와 식사(아침, 점심)를 제공하고, 교역자와 성도들이 머물 숙소를 제공하며, 편의 시설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편안함과 본 교회의 헌신적인 봉사로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한 명륜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사 윤석현 목사
사진 이나라 목사

2022년도 10월

계신총회 산기도회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 새벽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계신총회 교역자 산기도회가 있었다. 교역자 산기도회를 통해 계신 교단의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각자 텐트에서, 기도굴에서, 산에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기도회에서는 ‘기도’를 주제로 하여 6차례 모임을 가졌다. 고석남 목사는 ‘목회와 기도’, 채희근 목사는 ‘기도와 성령’, 유영길 목사는 ‘통성기도와 묵상기도’, 이용주 목사는 ‘전도자의 사명’, 심명석 목사는 ‘기도와 회개’, 김현기 목사는 ‘산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총회장 채희근 목사의 부탁으로 여섯 명의 목사는 "기도"라는 주제

와 관련하여 말씀을 전해주었고 총회원들은 이를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산기도회에 참여한 교역자들을 위해 도봉교회에서는 수육으로, 서광교회에서는 호두과자로, 장로회에서는 떡과 음료로 섬겨주었다. 이번 교역자 산기도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갖는 산기도회임이었음에도 143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산기도회를 개최하였고, 모든 일정을 끝내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감으로 계신총회 교역자 산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오성근 강도사

정은교회

입당 감사예배



2022년 10월 3일(월) 오후 2시에 경기노회 소속 수원 정은교회에 320여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담임인 흥한기 목사의 인도로 증경 총회장 고석남 목사(명륜교회 원로 목사)가 기도하고, 경기노회 노회장 김광호 목사(성산교회)가 성경을 봉독하였다. 총회장 채희근 목사(도봉교회)가 마태복음 16:13-20의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다. 담임목사가 건축 경과 보고를 하고,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증

정하였다. 증경 총회장 이용주 목사(송탄북부교회)가 축사를 하고, 증경 총회장(가락동부교회) 박황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021년 12월 5일에 건축을 시작하여 2022년 9월 8일에 준공되었고, 연건평 300평으로 1층110평, 2층 110평, 3층 20평, 4층 60평의 규모로 지어졌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어 입주되면 교회가 부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석진국 목사
사진 이나라 목사